

작업한지 오래 되어서 ,혹은 보관상의 실수로 생긴 이 얼룩들...

덧칠해 깨끗이하여 전시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그만 두기로 한다. 오브제로서의 미술품은 서서히 훼손되어 결국 소멸되어야 하는 것..... 지금 훼손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조금 앞당겨 졌을 뿐인 것을 ... 때문에 나는 다시 깨끗이 덧칠할 필요를 벗어 던진다. 그동안 해 놓았던 내 작품은 안정된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해 이곳 저곳을 유랑하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

인류의 문명은 그 절정에서 물러나 이제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다. 월드 트레이드 빌딩 테러 폭파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제 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은 테러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앞길에는 회색빛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거대한 공룡 인류의 앞날에 희망은 없다. 그러나 절망할 수(조차) 없음(않음).

희망없음이 분명하나 절망하지 않음, 절망할 수 없음. 절망할 수 없어서 난 이렇게 전시를 하여본다.

그렇다면(전시를 위해) 덧칠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결국, 결국 나는 안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다. 나는 나의 게으름을 소중히 한다. 나는 게으름이 미덕이 되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적게 움직이고 적게 소비하는 그런 사회. 재빠르고 부지런히 움직여 눈부신 것을 만드는 일에 나는 현기증과 멀미를 느낀다. 22,3세기 쯤에는 이런 사회가 실현될까. 썩썩 달리던 자본주의라는 기차가 드디어 무너진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날. 아마 갯돈은 어떤 모습을 띄고 올 것인가.....

오직 나는 나의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는 것만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미래는 일절 생각지 마라. 오직 주어진 현재만을 붙잡아라..... 오직 현재, 지금만을. 그런데도 나는왜 이순간 저 거실의 텔레비앞에 앉아 가족들과 더불어 웃고 즐기지 못하는가. 왜? 왜? 왜?